

산불예방, 푸른숲선도원이 앞장섭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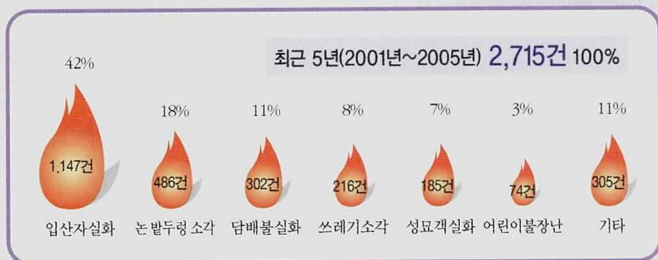
숲은 1헥타르에서 44명이 숨쉴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1년동안 1헥타르의 침엽수는 약 30~40톤의 먼지를, 활엽수는 무려 68톤의 먼지를 걸러냅니다. 녹색담의 기능을 하는 숲은, 물을 저장했다가 천천히 깨끗한 물로 바꾸어서 흘러보냅니다. 이렇게 다양한 숲의 기능을 돈으로 환산해 보았더니, 자그마치 50조원에 이릅니다. 국민 일인당 약 100만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 가꾼 산림도 산불이 나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합니다. 이를 다시 원상복구하는 데는 40년에서 100년이란 긴 세월에 걸쳐 막대한 노력과 비용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산불예방은 환경보호의 첫걸음입니다. 푸른숲선도원이
산불예방에 앞장서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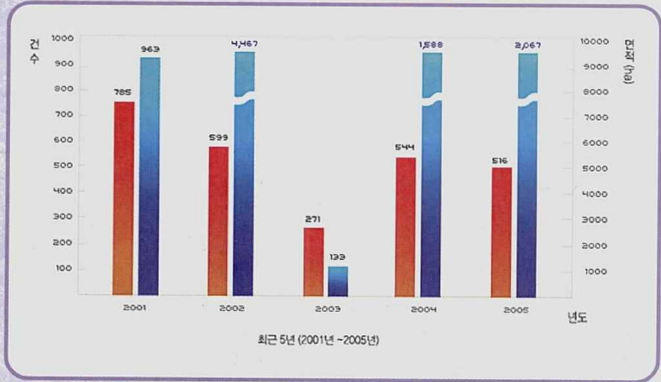
1. 산불의 발생원인

우리나라의 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합니다. 등산·행락인구 증가에 따른 입산자 실화가 대부분으로 약 42%에 해당합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건조기에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태우기에 따른 산불도 전체 중 18%로 많이 발생합니다. 담배불실화가 약 11%, 쓰레기소각으로 인한 실화가 8%, 성묘객실화가 7%, 어린이불장난이 3%에 해당합니다.



2. 산불의 발생추세

산불발생건수는 2001년도에는 785건, 2002년에는 599건이었고, 2003년에는 271건으로 갑자기 줄었으나, 2004년에 544건, 2005년도에 516건으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산불발생면적은 2001년도에는 963ha, 2002년도에는 4,467ha, 2003년도에는 133ha, 2004년도에는 1,588ha, 2005년도에는 2,067ha이었습니다.



3. 계절별 산불 발생 빈도

산불은 사계절중에서 주로 봄에 많이 발생합니다. 전체 중 67%에 해당하며, 그 다음으로는 건조한 겨울에 많이 발생합니다. 약 22%에 해당합니다. 여름과 가을의 산불발생 빈도는 약 4%, 7%입니다.

5년 평균(2001년~2005년)



봄
364(67%)



여름
22(4%)



가을
38(7%)



겨울
119(22%)

〈출처/산림청 산불정보 시스템 <http://sanfire.foa.go.kr/>〉